

다시 쌓아올리기 (Re: Mason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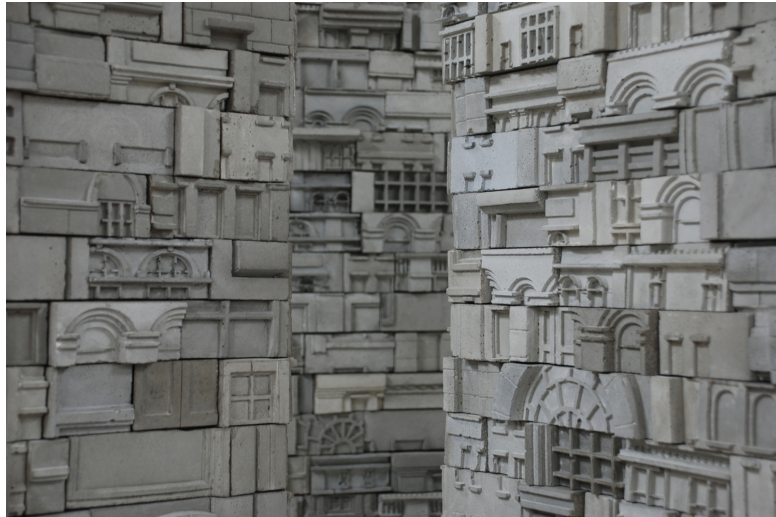
Press Release

김상균 (Kim Sang Gyun)

다시 쌓아올리기 (Re: Masonry)

2018. 8. 30 - 10. 6 / Opening reception 8.30, 6pm

갤러리바톤은 8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남동 전시 공간에서 김상균(Kim Sang Gyun, b. 1967)의 개인전 <다시 쌓아올리기(Re: Masonry)>를 개최한다. 일제 강점기에 제국주의 양식으로 지어지고 현재는 초현대화한 도심에서 과거를 환기시키는 유적지로 존재하는 건물들에 주목, 그 안에 담긴 시대정신과 힘의 헤게모니, 구체적인 표현의 형식을 자신의 조형화법에 농밀하게 녹여낸 신작을 대거 선보이는 자리다.



Pattern #180817 (detail), 2018

2015년 바톤과의 첫 개인전에서 작가는 양차 대전 전후 대한민국은 물론 동아시아를 광범위하게 휩쓸고 지나간 제국주의 열강의 잔재이자 20세기 초반의 지배적인 건축 양식을 기반으로 한 작업을 선보이며, 자신의 예술 철학의 주요 기조로써 '후기 식민주의(Post-Colonialism)'를 은연중에 드러냈다. 작가는 제국주의풍 건물의 파사드(Facade)를 차용하여 정확한 스케일로 축소된 콘크리트 패널을 생성한 후, 수많은 조각으로 나누고 다시 군집시키는 방식을 통해 고부조(High relief)와 저부조(Low relief)가 혼용된 평면 작업과 조각을 선보였는데, 이를 통해 타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과거 일시적으로 가졌던 아이덴티티를 해체하고 부여되었던 권위를 부정하는 접근법을 취하였다.

'다시 쌓아올리기'라는 전시 제목과 같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파사드의 외형적 특징을 간직한 채 최소 단위로 분할된 콘크리트 피스(Piece)을 조적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조각 작품을 주로 선보이는데, 이러한 시도는 각각의 피스의 수직적 합이 마치 현대적 건물의 모델하우스 혹은 원거리에서 관찰된 실물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불러온다.

GALLERY BATON

116, Dokseodang-ro, Yongsan-gu, Seoul, Korea 04420

+82 2 597 5701

info@gallerybaton.com

www.gallerybaton.com

이러한 외형적 특징과 더불어 작품의 주재료인 콘크리트의 사용은 근대 이후 영국에서 태동한 건축의 한 경향인 브루탈리즘(Brutalism)을 연상케 하는데, 비형식 지향, 거친 조형, 균형감 및 심미주의 거부, 내부 재료의 인위적 노출 등에서 그 유사성을 가진다. 제국주의를 풍미한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반발에서 브루탈리즘이 배양된 점을 감안할 때, 작가의 이러한 의도는 제국주의 건축의 기반이 되었던 모더니즘 양식을 통해 탄생한 건물들을 단순히 외형적 혼돈 부여 (콘크리트 피스의 작위적 배열)로만 다룸이 아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사조의 형식과 규범적 특성을 빌어 재차 논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작품 자체의 조형성과 완성도, 기법적 독특함과 함께 이러한 탄탄한 이론적 기반의 정교한 결합은 그간 김상균 작가의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와 시도의 결실이기에 이번 전시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상균은 서울대학교 조소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주립대학교(SUNY)에서 석사학위(MFA)를 수여받았다.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모스크바 국립현대미술센터 등 국내외 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최해왔고 2007년 미국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에서 프리먼 펠로우쉽 아시아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송은미술대상, 모란조각대상, 김세중 청년조각상, 오이타 아시아 조각전 등 다양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그의 작품은 국내외 우수 예술기관과 기업에 소장돼 있다.



Pattern #180728 (detail), 2018

GALLERY BATON